### 현대사회와 문화현상

## THEMA 1

## 현대사회의 이해와 특성



### 강사 김기섭

- 언론계 종사. <모터매거진> 유네스코 발행
- 국외홍보지 <고국소식> 취재기자/편집장 역임
- 디베이트 교육연구소 소장.
- 서울교대 평생교육원 중등논술지도자 과정 강사
- 또물또 통합논술연구소 연구위원





#### 1. 이야기 읽고 생각하기

산양의 일종인 '스프링복'이라는 양들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평화롭게 행렬을 이루지만 앞쪽의 양들이 풀을 뜯어먹어 버리면 뒤따르는 양들이 풀을 차지하기 위하여 앞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의 대열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뒤쪽의 양들이 속력을 내어 앞으로 달려오므로 앞쪽은 선두를 지키기 위해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양떼가 전속력으로 앞으로 달리다가 달려가는 힘에 의해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린답니다.

미련한 짐승이라고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았기 때 문일까요?

#### ▶ 위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와 어떤 점에서 닮았을까?

#### 2. 현대사회의 특징

현대사회는 전통사회에 비하여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르다. 어느 중학생의 다음과 같은 하루 일과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나의 하루는 아침 6시 반이면 시작된다. 일어나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는다. 우리 집 식탁은 조금 특이하다. 어머니는 얼마 전에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생산된 식품으로 만든 특수한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 우리 집은학교에서 좀 멀기 때문에, 아버지가 출근하시면서 나를 차로 학교에 태워다 주신다.학교에서 돌아와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켜는 것이다. 나는 가끔 캐나다에 사는 한 친구와 E-메일로 편지를 주고받는다. 그 애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무척궁금해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이름난 곳의 사진이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기도 한다. 컴퓨터를 통하여 편지를 주고받은 다음 숙제를 하고나서, 오후 7시쯤에는 드럼 치는 것을 배우러 학원에 간다. 남들은 공부하러 학원에가지만, 나는 드럼 치는 것이 재미있어 3개월째 배우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위의 글에서 우리는 현대 사회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먼저, 현대 사회에서는 교통·통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개인은 컴퓨터(PC)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 유전자 연구를 통하여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도, 사람들은 남들과 구별되는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남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대 사회는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한 사회, 정보화 사회, 생명 공학의 사회, 개성 추구의 사회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옛날보다도 더 편리한 일상생활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중2 도덕교과서 <현대사회와 전통도덕> 중에서 8 -10쪽

#### 3. 근대 산업사회의 의의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근대 산업사회'다. 이 근대 산업사회는 시민 혁명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등장과 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의 발전, 과학의 발달에 따른 합리주의의 확산과 개인주의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등장한 근대사회의 출현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근대 사회 곧 '현대사회'가 나타나게 된 시기는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유럽에서 자본주의의가 성립되고 시민사회가 등장한 17~8세기를 근대의 시초로 본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라는 양대 혁명에 의해 전통사회가 붕괴하면서 나타난 근대는 첫째, 기존의 왕과 신 중심이었던 중세 시대의 가치관이 '이성'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중세의 가치관이 붕괴된 빈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계몽사상과 합리주의와 같은 과학적 사고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둘째, 상인 계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분 질서의 변화는 시민혁명 이후 자유민주 주의를 세계 곳곳에 전파하게 된다. 산업사회 초기만 하더라도 부유층, 그리고 그 중 에서도 남성만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투표권이 평민 남성, 여성으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가 확대되게 된다.

셋째,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한다. 포디즘과 함께 대량 생산된 물건들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은 매체의 발전과 발을 맞춘 기업들의 광고에 따라 대량 소비를 가져온다.

한편 근대 사회의 출현을 가져온 과학 중심 사회, 자유민주주의 대두,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는 지배층 주도 사회에서 대중 중심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대중 사회는 필요에 의해 생산하던 삶의 스타일을, 소비를 목표로 공장에서 생산한물건들을 날마다 새롭게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스타일로 바꾸어 놓았다. 더구나 텔레비전의 발명과 보급은 동일한 라이프 사이클과 소비생활을 가져오게 했다. 귀족 중심의 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대됨으로써 대중문화를 출현시키게 된다. 특히이후 등장한 인터넷은 '정보혁명'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회의 변화를 더욱 빠르게 다양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 버스북\*



#### 4. 근대화의 의미와 시대정신

근대화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역사적 의미의 근대화는 서양의 역사적 발전 과정 중에서 특히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을 의미한다. 보편적 의미의 근대화는 근대적 서구라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그 사회의 고유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구조적 특징을 추출하여 재구성해낸 것이다. 즉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경제적 자본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등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고유한 사실이나 체제를 넘어서 인류사의 보편적 전형으로 근대 사회를 이루는 기본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근대 또는 근대의 시대정신, 기본이념은 인간 중심적 사유, 이성에 대한 믿음 및 합리주의, 도구적 자연관, 진보에 대한 믿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1) 인간 중심적 사유

중세가 신의 중심의 사고가 지배한 시대라면 근대는 신의 자리를 인간이 대체한 시대이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종교를 믿어야 했던 시대가 중세라면, 근대에서는 신앙과 종교, 심지어는 미신마저도 나의 종교적 결단과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계획하고 결정할 근거를 자기자신에서 발견한다는 점에서, 근대 사회는 인간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있다.

#### 2) 이성에 대한 믿음과 합리주의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는 합리주의의 표어가 되어 있었다. 당시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자극받은 데카르트는 철학적 사유의 영 역에서도 합리적 원칙들을 발견해냄으로써 그로부터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연 역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성적 인간이 이성을 통해 '명석, 판명하게' 인지하는 것은 참이며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근대사회를 합리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우선 귀납법과 같은 과학적 방법의 발견을 통해 자연 과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과학적 방법이 압도적으로 수확을 거두면서 그 현실적 효용성이입증되고, 이에 따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여러 사회과학이 이러한 방법론을 차용함으로써 분석, 종합, 분류, 체계화, 가설의 검증 및 법칙화가 일반화된다.

#### 3) 도구적 자연관

근대 이전만 하더라도 자연은 서양인들에 의해 일종의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로 간주되었다. 고대 희랍과 중세의 자연관이 그 예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물체들의 단순한 운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 뿌리에는 사유와 대상, 법칙과 현상 등 이분법적인 구분에 기초한 근대인식론이 자리한다. 자연법칙은 수학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에 있어 양적이며 계산 가능한 것만이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전만 하더라도 자연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벌벌 떨어야 했던 인간은 이성이라는 횃불을 통해 자연법칙을 발견함

버스북\*



으로써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 자연을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음이 현실로 입증되면서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 4) 진보에 대한 믿음

이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자연 앞에 우뚝 선 합리적 인간은 이제 인류 역사가 앞을 향해 발전해 나간다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간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류 역사를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즉 그는 역사 소수 계층만이 자유로웠던 억압적인 시대에서 만인이 자유로운 시대로 발전되어간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 과학적 진보와 함께 산업화가 가져다준 물질적 풍요를 일반인들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진보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진보는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사람이 더욱 행복해지고 품성도 향상된다는 도덕적 믿음도 포함 하고 있다.

#### 5. 근대사회의 문화 변화 과정

자본주의적 기계적 생산이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의 노동 습관은 급격이 바뀌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가 시사하듯 노동자들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기계에 맞 추어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이렇듯 기존의 노동과 는 다르게 공장이라는 정해진 곳에 정해진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된 노동자 들은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공장의 운영방식을 받아들일 수밖 에 없었다.

이처럼 산업사회는 일터와 가정의 공간적 분리, 그리고 노동과 여가 시간 분리를 통해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대표되는 공장의 운영 방침에 의해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듯 전통사회에서 자녀교육과 사회화, 문화, 규범, 가치 등의 전수와 규제, 의식주를 포함한 정서적,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 삶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가정은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 그 역할을 사회 제도에 떠넘기게 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역할은 회사로, 교육적 역할은 학교로 이전되었으며, 가정의 역할은 축소되면서 점차 핵가족화와 개인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대중매체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의 경제 구성체로 만들면서 사람들의 의식과 소비 활동을 대중화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자본주의 문화는 선택이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는 다양성을 확보한 듯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다국적 기업과 거대 기업들에서 내놓은 것들을 동일하게 소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획일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한다.

# 버스북\*



#### 6. 현대사회의 위기와 문제

그러나 현대사회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그와 비례하여 부작용도 낳았다. 새로운 도덕문제를 발생시켰다. 소중했던 옛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옛날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났다. 우선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삶의 의미나 가치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그 익명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현실과 가상공간을 구별하지 못해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또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 연장이나 식량 개발 이 오히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거나 새로운 질병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물질적 풍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황금 만능주의적인 성향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즉 사랑과 우정 같은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만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기도 하며, 때로는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게도 된다.

이처럼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가치가 소홀하게 취급되는 도덕 문제가 발생하기 도 하였다.(하략)

> - 중2 도덕교과서 <현대사회와 전통도덕> 중에서 10 -12쪽

#### 1) 19세기 말- 20세기 초

19세기까지 줄기차게 앞만 보고 발전해 오던 근대 사회는 19세기 말부터 서서히 그부정적인 측면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들은 20세기 들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근대화의 환상에서 깨어났다. 인류의 무궁한 발전에 대한 약속들이 하나 둘 깨어졌다.

우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사회가 분열되면서 계급화에 따른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도시화로 말미암아 도시의 삶의 질은 떨어졌고, 도시 하층 계급의 삶은 물질적 풍요를 약속했던 근대의 이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또한 근대화의 정치적 기치였던 자유, 평등, 박애 또한 시민혁명 당시에나 통했던 이념적 수식에 불과했다. 거대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등장한 관료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율적 개인이 아니라 체제의 톱니바퀴로 떨어졌다. 근대인의 사고, 감정, 취미는 매스미디어 및 정부 기구에 의해 조작되었다.

경제적 성장은 일부 부강한 나라들에 국한된 채, 부강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졌다.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왜곡된 개인주의로 말미암은 공동체 의 파괴,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박애는 실종되었다.

기술적 진보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긴 했지만 대량 학살을 낳기도 했다. 인류가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량 살상이 기술적 진보로 가능할 수 있음을 제1, 2차 세계대전이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나아가 핵폭탄의 발명 및 투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히려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린 결정적 사건이었다. 또한 자연의 무분 별한 착취로 말미암아 생태계의 파괴, 환경오염 등 근대 사회의 약속을 다시 돌아보 게 하였다.

#### 2) 20세기 말- 21세기 초(현대)

#### (1) 위험사회

앞만 보고 달려온 급진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이 현대 산업 사회 전반의 안전과 위험에 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위험사회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한 것은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학자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다. 울리히 벡에 따르면 과거에도 위험은 있었으나 현대 사회의 위험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곧 예전의 위험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 즉각 감지할 수 있었기에 원인 규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또 위험의 파급효과는 위험 발생지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위험은 실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아 원인 찾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해나 방사능 오염처럼 위험의 결과가 누대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 변방에서 발생한 사스가 아시아 전역의 경제를 강타한 것처럼 그 효과도 일파만파 확대되어 간다.

벡은 위험이 평상적 지각 범위를 벗어나고 산업의 논리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생산되면서 현대 산업 사회는 위험사회로 옮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경제적인 부를 희생하더라도 위험을 사전에 철저히 막는 것이 위험 사회에서 인류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 경로라고 말하고 있다.

#### (2) 맥도날드화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사회 전반의 합리화와 이에 따른 병폐로서의 합리성을 '맥도날드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맥도날드화란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점의 규격화, 편리성, 효율성 등의 원리가 사회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과정을 말한다. 맥도날드의 성공은 수요 공급자 모두에게 유용한 효율성, 비용과 시간의 계산 가능성, 제품과 서비스가 동일하다는 예측가능성, 무인 기술에 의한 인간 통제라는 매혹적인 '합리화'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효율성의 추구는 계산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선 사람이나 운전자용 창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차에서 어긋나기 시작한다. 많은 양의 지방, 콜레스트롤, 소금, 설탕 등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며, 대량 생산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코딩 용기 제작을 위해 수백 제곱 마일의 산림이 없어진다. 종업원은 기계부속처럼 움직여야 하며 종업원과 고객은 잠시 스치는 사이에 불과하다. 조지 리처는 이러한 '합리성이 비합리성'과 비인간화를 비판한다. 스포츠와 레저는 물론 의료, 교육, 여가, 종교, 가정에 이르기 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서 진행되는 있는 맥도날드화를 경고한다.